

# 정제마진 반등했지만... 정유사 2분기도 실적회복 요원

정제마진 14주 만에 반등했지만 수익성 제고는 시기상조 우려 1분기 대규모 적자, 수요 절벽 등 2분기도 실적 마이너스 예상



GS칼텍스 여수공장 전경.

/GS칼텍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제마진이 다시 반등했지만, 여전히 정유업계 전망은 밝지 않아 의문이 제기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정제마진이 최근 다시 반등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적 수요가 줄며 직격탄을 맞았던 정제마진이 '턴어라운드' 한 것. 정제마진은 정유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지난 3월 셋째 주 -1.9달러로 처음 0달러 밑으로 떨어진 정제마진은 14주 만에 수익을 냈다. 이달 들어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6월 1주 -1.6 ▲6월 2주 -0.4 ▲6월 3주 0.1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국내 정유업계는 코로나19의 팬

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올해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했다. 국내는 물론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며 석유제품의 소비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주요 정유사 4곳의 영업손실도 포함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유사별로는 ▲SK이노베이션 -1조7752억원 ▲GS칼텍스 -1조318억원 ▲에스오일 -1조73억원 ▲현대오일뱅크 -5632억원 등이다.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하고 전 정유사가 1조가 넘는 적자를 나타냈다.

정제마진이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정유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는 요원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올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냈을 뿐 아니라, 아직 정유사가 이익을 낼 만한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실제

정유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BEP(손익분기점)는 통상 배럴당 4~5달러로 본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석유제품의 수요가 하락하고 있었던 만큼, 기존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수익성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는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화학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이유기도 하다.

이 같은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올 2분기도 실적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4사 가운데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과 에스오일의 영업손실은 각각 ▲-3869억원 ▲-697억원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분기 대비 그 폭은 줄지만, 여전히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오름세이고, 원유판매가격(OSP)의 하락 등

변수가 많아 3분기까지 여파가 미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제마진이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1분기에 많이 안 좋았던 정제마진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정유사들이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경영난에 대해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일단 무역 분쟁 등이 계속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석유 제품 수요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충분한 마진을 형성하지 못했다. 또, 거기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항공유 수요 급감 등 전반적인 이동 수요에 악영향을 더 미치며(경영난이) 심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분기 손익은 OSP 하락으로 인한 원가 인하에도, 수요 절벽으로 정제마진이 낮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단 1분기처럼 대규모의 재고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7월 도입분부터는 다시 OSP가 인상되기 때문에 3분기 정유사 손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손병두 "증권사 콜차입 한도 8월부터 15%로 복원"

(금융위 부위원장)

###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기간산업안정기금 협력업체 운영지원 프로그램은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30%까지 확대한 증권사 콜차입 월 평균 한도는 8월부터 기존수준인 15%로 복원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일부 저신용등급 기업의 경우 여전히 금융지원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정부가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을 활용해 지원의 시각지대를 메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완성차 업체 상생협력 특별 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해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나갈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자산매각 지원방안 등의 신규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

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기업, 금융권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권에서도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 지원활동을 통해 경제충격의 완충제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오는 8월부터 증권사 콜차입 월평균 한도를 기존수준인 15%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말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콜차입 월평균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며 "시장안정대책으로 시장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만큼 7월 중 콜차입 한도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한 뒤 8월부터는 기존 수준(15%)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100조원+알파(α) 대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지원한 자금은 총 166만 7000건으로 139조2000억원에 이른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해외주식 투자 열풍에 대외금융자산 1.3조달러

지난해 해외 주식투자 등으로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9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한국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1조2909억 달러(1562조6344억원)로 전년 말 대비 1483억 달러(179조4578억원)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4131억 달러(32.0%)로 가장 많았고 ▲EU(2481억 달러, 19.2%) ▲동남아시아(1685억 달러, 1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과 EU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각각 631억 달러, 417억 달러 늘었다"며 "증권투자 확대와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형태별로는 직접투자가 미국이 1036억 달러로 23.5%를 차지했고, 동남아는 887억 달러로 비중은 20.2%다. 증권투자는 미국과 EU가 각각 2541억 달러(44.4%), 1432억 달러(21.1%)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부채 잔액은 1조1988억 달러로 전년 말에 비해 886억 달러가 증가했다.

투자지역별로는 미국이 3178억 달러로 26.5%를 차지했고 ▲EU 3063억 달러(25.5%) ▲동남아 2182억 달러(1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전년 말 대비로는 동남아와 EU, 미국 등의 투자잔액이 각각 253억 달러, 222억 달러, 178억 달러 증가했다.

투자형태별로는 EU의 직접투자가 878억 달러로 36.8%를 차지했다. 증권투자는 미국(2610억 달러)과 기타투자(696억 달러)의 비중이 각각 35.2%, 36.8%로 높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수소경제 힘 실는 정부... 청정수소 해외서 들여온다

국내 기업과 손잡고 2030년 내 해외 청정수소 공급 플랫폼 구축

정부가 앞으로 10년 이내인 2030년 이전에 해외 청정수소를 도입키로 하고 국내 기업 등과 해외 청정수소 공급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에너지 공기업과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했다. 이날 협약에는 수소 분야에 관심이 큰 대우조선해양, 두산퓨얼셀 등 민간기업 16개사, 한국가스공사·한국

전력공사 등 공기업 5개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준정부·연구기관 6개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선급 등 30곳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기관은 세계 수소 경제 산업 선도와 해외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초타당성 조사, 기술개발·실증·국제협력·공동연구 등에서 민관이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수소차와 충전소 등 6개 분야 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9년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연간 수소충전소 세계

최다 구축,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시장 조성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 5월까지 수소전기차 보급 대수는 2231대로 지난해 동기간 1008대 대비 약 120% 증가했으며 연료전지 역시 올해 하반기까지 180MW 이상 추가 완공될 예정으로 2022년 목표 1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초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하기는 했으나 수소 충전소는 올 한해 누적 100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연간 수송용 수소 수요량은 2020년 4000톤에서 2030년 약 37만 톤, 2040년 약 100만톤까지 확대가 예상

되고, 철강·화학 등 산업계 수소 활용이 확대될 경우 수소 공급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부생수소의 공급 잠재력, 추출수소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국내 그린수소 생산능력과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2030년 이후 국내 수소 수요의 최소 10~50%의 청정수소를 해외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와 유사한 환경의 일본도 호주, 브루나이 등지에서 해외 수소 도입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관관합동 수소 사업 기획단을 통해 저렴한 해외 청정수소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